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12:1-3,18:22-32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바울은 초라한 죄인으로 로마에 입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신실한 종을 통해서 유럽전체를 변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환경에 최고의 학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몰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역사를 바꾸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한 사람을 택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1. 택함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아브라함은 자격이 있어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시 139:16)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조건 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본인은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만큼 인류문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이는 없습니다. 그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문명의 조상이며 현대 서구 문명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그 선택 받은 자가 복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렸지만, 결국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2. 택함 이후는 믿음은 말씀으로 출발한다.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믿음은 말씀을 받음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은 씨와 같고 생명과 같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썩이 나듯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면 믿음의 썩이 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에 성령을 통해 믿음의 썩이 나올 것입니다. 씨앗이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믿음의 세계는 엄청난 세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 자신들이 어디까지 변화할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이므로 제한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복이 보장됩니다. 이것은 마치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세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셋째,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들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주체됨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복이 되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에게 붙어 있는 자들은 우리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3. 복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임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친구하고 부르셨고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에게 나라의 복과 자손의 복과 건강의 복과 한량없는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 3:9** 을 통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같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지만 우리 인간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먼저 마음속에 그것을 이루어 놓고 그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 15 장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아 네 후손도 저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많으리라” 했을 때 그는 80 이 넘는 자신의 늙고 쭈그러진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마음에 새기며 수 많은 별들을 그의 자손들로 받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별들을 바라보며 “내 자식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고 항상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 세에 이삭을 낳게 하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모르고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 넘어 꿈을 꾸시고 그 꿈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내는 하나님이십니다.

4. 진정한 역사는 순종하는 곳에 임한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정확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고 하셨습니다.”(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르며 일단 하란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성경 히 11:8 에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정착했던 곳을 떠나는 일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면 얼마나 난감하고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떠나는 것은 철저한 순종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지금까지 내가 누리면서 살아온 이 세상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항해를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세상이 나에게 준 모든 특혜, 모든 자격, 모든 인간관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생의 기초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새로운 항해를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종교를 가지거나 종교적인 지식을 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학벌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세상에 그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삶 입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며 새로운 삶들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도 거두어 가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단호하며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고 서로 존중한다는 것이며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하나님과 교제 하는 데서 얻는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기반 위에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신앙은 과감한 모험을 가능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5.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창세기 18 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다섯개 도시의 운명을 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협상이 벌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공의의 하나님이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한꺼번에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심판이 목적이셨다면 아브라함과 50 명에서 10 명까지 장난 같은 일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며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죄 많은 성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들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운명이 결정되어도 그 운명을 바꾸는 것은 기도입니다. 특히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친구라는 칭함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한한 은혜입니다. 택정함을 받은 자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2015 년 한 해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열방으로 그 복들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이 순전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자각한 때는 언제였는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 이후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았지만, 삶에 다가온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4. 3 번의 나눔을 중심으로, 택한 받은 자들도 경험하게 될 고난의 현장에서 견지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지 짧은 한마디로 각자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5. '순종'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근간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인격적 교제의 현장은 어디이며, 그곳에서 나눈 교제와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경우를 나누어 주십시오.
6.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우리들이 2015 년 한 해 동안 각자 기도해야 할 영역은 어디인지 서로 나누어 보고, 함께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